

사우디아라비아 재정계획 과제 사전미션 출장보고서

2020. 1. 7.
글로벌경제실

1 출장 개요

- 과제명: KDI-사우디CSD 공동협력연구
- 일 정: 2019. 12. 24.(화) ~ 12. 28.(토), 3박 5일
- 출장지: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(방문기관은 아래 참조)
 - 경제기획부(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: MEP)
 -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: MoF)
 - 지출효율성센터(Center for Spending Efficiency: CSE)
 - 전략개발센터(Center for Strategic Development: CSD)
- 출장자: 총 5명
 - KDI: 우천식 글로벌경제실장, 임영재 50주년추진단장, 이찬우 초빙연구위원
 - 외부: 김규욱 회장(한국 M&A협회), 백기웅 법률조사관(국회도서관)

2 출장 배경 및 목적

- KDI는 올해 6월 사우디 CSD와 협력각서를 체결하여(한-사우디 정상회의 계기)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의 발판을 마련
 - 이후 10월 중순 CSD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사우디 방문 당시 MEP 차관보가 긴급회의를 통해 「사우디아라비아 재정계획 과제(Fiscal Review of KSA)」*를 제안
 - 연구 내용은 사우디의 재정·예산 검토 및 계획으로, ①2030 발전전략 검토, ②예산설계, ③재정제도 설계, 3개의 모듈로 구성
 - 이에 KDI는 12월 초 사우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과제 구체화 및 계약 추진 중이며,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유관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사

전면담을 통해 사우디의 경제·재정 현황, 예산제도, 과제 진행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함.

- * 사우디는 2030년까지 제도 개혁, 경제전략 수립,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해 ‘비전2030’을 제시하고 산업정책 로드맵 작성과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, 비전 달성을 위한 예산 및 재정계획의 일부로 본 과제를 의뢰

3] 출장 주요 결과보고

1) 사우디 경제기획부 면담

□ 재정계획 과제 개요 및 목적

- 사우디는 비전2030 달성을 위하여 재정 및 예산 효율화, 간소화를 모색
 - 이러한 의미에서 본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에게 최우선 과제이며 한국의 재정개혁 경험이 사우디에 큰 의의를 줄 것으로 기대
 - 특히 실용적인 정책 제언과 예산·재정제도의 기준점 재설계 요청
- 3개의 모듈로 구성: ① 2030 발전전략 검토, ② 예산설계, ③ 재정제도 설계
 - 사우디 정부 예산의 큰 축은 기본사업(Business as usual: BAU), Vision Realization Program, Mega-Projects로 구성
 - 현재의 사업 및 정책을 점검하고 그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며, 특히 모듈2에서 CAPEX, OPEX 구조화 및 효율성 개선 방안 제시를 요청

□ 한국의 예산 및 재정제도(KDI 발제)

-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및 재정 총괄 부처
- 매해 경제정책방향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·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
 - 예산과 재정은 엄밀하게 다른 분야로 이에 대한 차별적인 관리가 필요
- 또한,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(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이후 1999년부터 예타 시작)
 - 5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은 필수적으로 실시
 - 예비타당성조사는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함에 있어 경제·정책 분석을 포함
 - 정량, 정성 등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투자사업을 검토

-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, 또는 직권으로 선정하며, 검토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
- 사우디는 각 부처에서 수행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으며, 사업의 효율성도 사회 전체적인 효용보다는 재정적 이익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음.
- 이러한 점에서 사우디 정부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한다면 공공투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

2) 사우디 재무부 면담

□ 사우디의 예산 수립 과정 및 재정 현황

- 예산계획은 재무부 산하 Financial Committee (재정위원회)에서 담당하며,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총괄 기관
 - 하지만 예산 관련 최종 권한은 국왕에게 있으며(의회의 역할은 제한적), 이로 인해 예산 투명성 및 지출 성과관리가 미흡
 - 예산의 이전·전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매년 재정 지출이 예산액보다 많음.
- 사우디 재무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(Public Investment Management) 및 성과기반예산제도(Performance based Budgeting)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
 - B/C 분석, CAPEX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

3) 사우디 전략개발센터 면담

□ 사우디 재정 개혁 추진

- 사우디의 예산 및 재정제도는 과편화되어 있어 경제·사회 전반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함.
 - 정부 예산의 80-90%가 석유 및 관련 산업 수입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
 - 유가 변동에 의해 경기순응적으로 세입/지출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음.
- Athar 고문은 한국의 재정개혁 역사와 경험, 특히 한국의 산업 다각화, 효율화 전략을 공유하고 사우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